



한-세르비아 EPA 추진현황과 우리기업 진출 방안

목 차

1. 세르비아 국가 · 경제	4
2. EPA 개요 및 양국 EPA 추진배경	7
3. 세르비아 주요 산업	9
4. EPA 전망 및 기대효과 분석	13
가. 10대 수출 주요 품목 분석	13
나. 현지 주요업체 반응 및 전망	27
5. 타국 사례(세르비아-튀르키예 FTA) 분석	33
6. 시사점	38

요 약

한-세르비아 양국은 2023년 두 차례 정상회담(대통령, 총리)를 통해 EPA* 추진을 논의했다. 양국이 조속한 EPA 협상에 뜻을 같이함에 따라 협상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
*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: 양자/다자간 경제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

EPA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FTA와 유사하나, 관세 양허에 특화된 FTA보다 폭 넓은 경제협력 논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. EPA가 다룰 수 있는 의제는 관세 양허, 기술정보 교환, 지식재산권 보호, 행정절차 간소화 등 매우 광범위하다.

세르비아는 그간 미지의 시장, 과거 유고연방 중심국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,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유럽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.

또한 세르비아는 다양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,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발칸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 또한 신재생에너지, 바이오, 모빌리티 등을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도 분명하다.

동 보고서에는 한-세르비아 EPA 추진에 맞추어 10대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. 품목선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중, 관세인하효과, 세르비아 유망산업, 바이어·국내진출기업들의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졌다. 그 결과 승용차, 휴대폰, 모니터, 건설중장비, 의료기기, 화장품, 식품, 타이어 등 품목이 선정되었다.

베오그라드 무역관이 실시한 현지 바이어 및 진출기업 인터뷰에 따르면 EPA가 발효될 경우,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 세르비아 수출 및 투자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. 중국-세르비아 FTA 발효가 내년으로 예정된 가운데, 정부지원을 통한 우리기업 경쟁력 적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.

1

세르비아 국가 · 경제

국명	- 세르비아 공화국(Republic of Serbia)
위치	- 중남부 유럽, 발칸반도 중심부인 다뉴브 강 판노니아 평원에 위치 - 헝가리, 루마니아, 불가리아, 크로아티아, 몬테네그로, 마케도니아,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
면적	- 88,361 km ²
기후	- 대륙성 기후
수도	- 베오그라드(Belgrade)
인구	- 7,167,918명(2023년 기준)
주요도시	- 베오그라드(140만, 수도), 노비사드(33만), 니쉬(26만)
인종	- 세르비아인(83%), 헝가리인(4%), 보스니아인(2%), 기타(11%)
언어	- 세르비아어(라틴문자, 키릴문자 사용)
종교	- 세르비아정교(85%), 가톨릭(5.5%), 이슬람(3.2%), 개신교(1.1%), 기타(5.2%)
정부형태	-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혼합
국가원수 및 정부수반	- 국가원수: Alexandar Vucic 대통령(2017년 취임) - 정부수반: Ana Brnabic 총리(2017년 취임)

□ 세르비아 국가개요

- 세르비아는 과거 유고연방의 중심국가로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였으나, 21세기 초 내전과 경제제재를 겪으면서 산업의 기반이 붕괴
- 이후 EU·세계은행 기금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및 외국인 투자 유치로 유럽 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
- * 세르비아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투자액 총 420억 유로(약 460억 달러) 유치, 경제 규모 대비 유럽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있음

- 세르비아는 유럽과 중동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, 크로아티아, 헝가리, 불가리아, 루마니아, 몬테네그로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오랫동안 동남유럽의 중심지 역할 수행
- 세르비아는 EU 가입을 국가 목표로 삼고, 인프라 개선 및 정비에 노력하고 있으나, 러시아 제재 등 EU와의 대외정책 공조 및 코소보 문제로 인해 가입이 지속 지연되고 있음('23년 12월 기준)
 - * EU는 세르비아의 EU 가입 조건으로서 세르비아의 코소보 국가 승인을 요구
-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엑스포(인정박람회)를 유치하였으며 2027년 '스포츠와 음악' 주제로 엑스포 개최 예정
 - * 미국 미네소타, 태국 푸켓, 스페인 말라가, 아르헨티나 산카를로스데바릴로체와 경쟁하여 최종 유치('23년 6월)

□ 세르비아 경제개요

<세르비아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>

주요지표	단위	2020	2021	2022	2023*	2024*
경제성장률	%	-0.9	7.4	2.3	2.0	3.5
명목 GDP	십억 달러	53.3	62.9	63.5	75.6	84.3
1인당 GDP	달러	7,730	9,215	9,357	11,176	12,490
소비자물가상승률	%	1.6	4.0	11.8	12.4	3.5
수출	백만 달러	18,414	24,828	28,296	31,126	33,616
수입	백만 달러	24,355	31,922	38,198	40,948	43,814
재정수지(GDP대비)	%	-8.0	-4.1	-3.0	-2.9	-2.5
공공부채(GDP대비)	%	57.0	56.5	55.2	51.0	50.0

자료원 : EIU, IMF, World Bank, ITC, 세르비아중앙은행, 한국무역협회

- 세르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근래 유럽 내 타국가 대비 빠른 성장세를 유지
 - 2021년 7.4% 성장에 이어 2022년 3.0%, 2023년 2.0% 성장 전망

- 인플레이션에* 따른 구매력 감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세르비아 정부는 연금 인상 및 생활소비재 가격 인하를 통한 경기 활성화 추진
 - * 2022년 2월 이후 인플레이션 꾸준히 상승하여, 2023년 3월 16.2%로 최고치 기록
- 낮은 인건비, 우수인력,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토대로 동유럽 투자유망지역으로 부상
 - 헝가리, 폴란드 등 기존에 한국기업 투자진출이 활발했던 동유럽 지역이 투자 포화에 달해 최근 세르비아 진출 문의가 활발

□ 세르비아 FTA 네트워크

- 세르비아는 EU, 영국, 러시아, 미국, 발칸 인근국 등 총 46개국과 FTA 및 GSP를 통한 수출입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
 - 특히 세르비아는 발칸지역의 중심국*이자, CEFTA 체결을 통해 발칸국가와의 경제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, EPA 체결 시 한국의 해당 국가 시장 진출에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
 - * 세르비아 유통업체가 몬테네그로, 북마케도니아, 보스니아 등을 함께 관할하는 경우가 많음

세르비아 FTA 또는 GSP 체결 주요 국가(2023년 12월 기준)		
체결국가(또는 그룹)	인구	수출비중(2022년)
EU	약 4억 5,000만명	64%
CEFTA * 크로아티아, 보스니아, 몬테네그로, 알바니아, 마케도니아, 몰도바, 코소보	약 1,300만명	15.9%
EAEU	약 1억 8,000만명	4.5%
미국	약 3억 3,000만명	1.9%
튀르키예	약 8,500만명	1.6%
EFTA * 노르웨이, 리히텐슈타인, 스위스, 아이슬란드	약 1,600만명	1%
일본	약 1억 2,000만명	0.3%
호주	약 2,500만명	0.1%

- 2023년 중국과의 FTA 체결을 완료하였으며, 2024년 2분기 발효 예정
 - 중국은 2023년 기준 對세르비아 수출액 51.7억 달러를 기록한 주요 교역국이며, 중국의 투자규모는 42억 달러에 달함(출처 : 세르비아 통계청)

2 EPA 개요 및 양국 EPA 추진배경

□ EPA 개요

□ EPA(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

- 양자 혹은 다자간 폭넓은 경제 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
 - * 역내 무역·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를 촉진, 국내 규제의 철폐 및 각종 경제 제도의 조화 기술이전 등 광범위한 경제협력 논의가 가능

- EPA란 두 개 이상의 국가간 상품, 서비스,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국가간 관세/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호혜적인 경제통합과 참여를 제공하는 협정으로, 일반적으로 EPA 체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됨

EPA에서 주로 논의되는 협력분야

- 관세 철폐 또는 인하
- 투자 및 서비스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
- 기술 규정, 표준 정보 교환
- 일반 행정절차 간소화
-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
- 지적재산권 보호

- FTA가 상품에 대한 관세, 서비스 무역장벽의 감소 또는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, EPA는 무역자유화, 투자, 국민이동,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규칙 제정 등 보다 광범위한 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. 즉 EPA가 FTA보다 더 폭넓은 경제협력 논의 가능

□ 사례 : 일본·EU EPA(2019년 발효)

- EPA발효 즉시 각각 86% 및 96%, 15년 내 97% 및 99% 품목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고 주요 산업에서 동일한 국제표준을 따르는 등 비관세장벽도 폐지하기로 합의(출처 : KIEP)

□ EPA 추진배경

- 양국 교역규모는 2017년 1.6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'22년 4.1억 달러로 5년 만에 교역액이 2.5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, 유럽 내 한국의 새로운 무역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

〈한-세르비아 2017년~2023년 교역액 추이(단위: 백만달러)〉

구분	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 (-10월)
수출	금액	96	153	142	207	268	233	225
	증감률	1.5	60.2	-7.6	45.9	29.5	-13.0	13.7
수입	금액	65	61	241	168	210	181	98
	증감률	48.1	-5.8	295.1	-30.3	25.3	-13.8	-37.8
총교역액		161	214	383	375	478	414	323
무역수지		31	92	-99	39	58	52	127

자료원: 한국무역협회

- 다만 세르비아는 EU 미가입국으로서 한-EU FTA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세* 문제가 우리기업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

* 화장품, 자동차(부품), 식품 등 주요품목별 관세가 최대 11%에 달함

□ EPA 추진현황

- 2023년 2차례의 회담(대통령급, 총리급)을 통해 협상 시작 사실 공표

일시	추진내역
'23.2	세르비아, 언론보도를 통해 한-세르비아 FTA 협상 시작 내용 공표
'23.9	세르비아 총리 방한, 한국총리 면담시 '한·세르비아 경제동반자 협정'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
'23.10	양국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에서 정상회담 진행. 향후 '한·세르비아 경제동반자 협정'의 조속한 개시 합의

* 2023년 9월 양국 총리, 한-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 서명

- 아직 구체적인 EPA 추진 일정이 발표된 것은 아니며, 협상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폐지 정도, 협력 분야 등을 결정할 예정

3 세르비아 주요 산업

□ 산업개요

- (산업개요) 세르비아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세르비아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 및 외국인 투자 확대 정책에 힘입어 자동차, 전기 전자, 소비재, IT 중심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발칸 내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부상
- (GDP 구성) 세르비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(2023년 발표) 세르비아의 산업별 GDP 구성은 농목축업 6.5%, 제조업 23.1%, 서비스업 52.4%임

〈세르비아 GDP 산업별 비중 변동 추이〉

산업분야	산업별 비중		
	2020년	2021년	2022년
1. 농업, 어업, 임업	6.3%	6.3%	6.5%
2. 제조업	24.9%	25.0%	23.1%
3. 서비스업	51.9%	51.4%	52.4%
- 건설	5.4%	6.0	5.5
- 운송 물류	3.4	3.5	3.5
- 정보 통신	5.4	5.1	5.1
- 금융	3.3	3.2	3.2
- 부동산	7.0	6.8	6.9
- 교육	3.5	3.4	3.2
- 기타 서비스업	1.2	1.1	1.1

자료원: 세르비아 통계청, World Bank

□ 주요 산업별 현황

① 자동차·부품

- 세르비아 내 유일한 완성차업체인 스텔란티스(Stellantis)*가 2024년

부터 세르비아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개시 예정

- * 이탈리아 피아트社 2008년 세르비아 내 피아트 생산공장 설립, 이후 사명 변경
- ZF, Continental, Bosch 등 Tier 1 기업이 세르비아 내 공장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독일, 이탈리아, 헝가리 등 OEM으로 수출하는 구조임
- 세르비아 내 리튬 매장량(약 120만톤 추정, 미국지질조사국)을 토대로 세르비아 정부는 세르비아 내 전기차 밸류체인을 구성하기 위해 외국 배터리 관련 기업의 세르비아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

② 전자기기

- 세르비아는 유럽 내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세에 기반하여 중산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중산층의 구매력에 기반한 전자기기 시장의 소비 확대가 나타나고 있음
-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기저효과, 경기부진, 인플레이션으로 다소 전자기기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, 2024년부터는 다시금 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
- * Fitch Solution : '23-'27 세르비아 전자기기 시장 연평균 5.8% 성장 예상
- 화웨이(中), 하이센스(中), 지멘스(獨) 등 글로벌기업의 세르비아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, 세르비아 생산 후 기타 유럽국가에 납품하는 구조
- * 하이센스 2022년 7월, 세르비아 Valkevo 지역에 4,000만유로 투입한 가전공장 가동

③ 방산

- 코소보를 비롯한 주변국가와의 민족갈등으로 인해 세르비아 주변에 군사적 갈등상황이 존재하며, 세르비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
- * 세르비아 '21년 국방 예산 10.2억달러로 '20년 대비 21% 증가하였으며, '22년 및 '23년도 5% 이상의 증액이 예상됨(출처 : 미국 국무부)
- 또한 세르비아 방산업체들이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동과

아프리카 지역에서 군수품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, 세르비아 방산업체의 비즈니스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

- 세르비아 국방부 및 세르비아국방기술원(MTI) 등을 중심으로 한국 방산기업과 세르비아 유관기관/기업 간 방산산업 협력 희망

④ 식품

- 세르비아는 서부 발칸반도의 중심국이고, 인구 700만으로 주변국가 중 제일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민간 소비도 2027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
- 장기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육류, 가금류, 유제품, 커피, 주류 등 전반적인 식품 산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
- 도시화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세르비아 소비자의 식품 트렌드가 기존 전통식에서 패스트푸드, 테이크아웃으로 변화하고 있음
-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근래 세르비아에도 한식당과 한국식품점이 입점하는 등 다양한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

⑤ 의약품

- 세르비아 총리실은 바이오 산업을 세르비아 미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한 역점 프로젝트로 2025년까지 베오그라드 내 글로벌기업, 대학, R&D 센터를 유치하여 바이오 클러스터 'BIO Campus 4' 조성 계획
- 세르비아 내 의약품은 주로 유럽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(독일, 프랑스, 슬로베니아 등), 근래 미국, 중국의 비중도 증가세
- 근래 우리 백신 및 바이오 기업과 세르비아 백신연구소, 정부기관간 백신 유통·투자협력·공동 R&D 관련 계약 체결사례 다수 발생
 - * 우리기업 L사, 2023년 세르비아 백신연구소와 간염백신 공급계약 체결
- 코로나19 기간, 양국 정부 협력을 통한 한국 의약품·의료기기 긴급 조달 등 바이어의 K-바이오 제품 선호도가 지속 상승하여 세르비아

내 한국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음

* 한국의약품 수입액 : ('19) 413만달러 ('20) 462만달러, ('21) 972만달러, ('22) 711만달러

⑥ 의료기기

- 세르비아 주요도시인 베오그라드, 노비사드, 크라구예바츠, 니쉬의 주요 의료시설 현대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, 유럽투자기금·세계은행 지원을 통한 다수의 의료기기 공공조달 프로젝트가 진행중
- 세르비아의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진료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, 세르비아 의료기기 수준이 높지 않아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수입(수입품 비중 약 88%)에 의존하고 있음

* 의료기기 시장 2022년~2027년 연평균 4.8% 성장 예상(Fitch Solution)

⑦ 에듀테크

- 세르비아 정부, 교육시스템 디지털화, 온라인 학습 성장, 디지털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통해 에듀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, 정부의 육성책에 힘입어 외국의 코딩교육, 학습플랫폼, VR/AR 활용 시스템 등이 공립·사립학교에 도입되고 있음
- 세르비아 에듀테크 시장 2022년 2,800만달러에서 2027년까지 약 4,7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(출처 : Statista)
- 우리 교육로봇, 교보재, 교육플랫폼, VR/AR 활용기술 등 다양한 에듀테크 분야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세르비아 유통업체 및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

* 우리기업 D사, 2023년 세르비아 유통기업과 코딩로봇제품 유통계약 체결

4

EPA 전망 및 기대효과 분석

가. 10대 수출 주요 품목 분석

◆ 10대 수출 유망품목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함

1. 한국의 세르비아 주요 수출 품목 중 HS코드 2자리로 1차 분류
2. 최근 세르비아 내 성장률이 높은 품목 선정
3. EPA로 인해 관세철폐 시 수혜폭이 클 관세율이 높은 품목 선정
4. 현지 유통업체 및 현지 진출기업 의견 수렴

< 한국의 대세르비아 10대 주요 수출 품목 (2022 기준, HS 4단위) >

(단위 : 천 달러)

순번	HS 코드	품목	2020	2021	2022
1	8703	승용차	6,860	6,670	10,850
2	8517	휴대폰	1,344	695	14,035
3	8528	모니터, 프로젝터, TV	7,284	7,502	4,455
4	8429	불도저, 스크래퍼 (건설중장비)	6,520	3,773	5,398
5	8458	절삭가공용 선반	1,314	1,211	2,473
6	9022	초음파 및 방사선 기기	730	618	3,918
7	9018	의료용 진단기기	3,703	5,267	3,849
8	3304	화장품	933	1,410	1,793
9	1902	라면	9	13	20
10	4011	고무 타이어	2,047	3,045	5,791
전체 수출액			265,338	378,648	366,604

자료원: ITC, 세르비아 통계청

① 자동차 및 부품 (HS 87류) - 승용차 (HS 8703)

주요 품목명	승용차	HS 코드	8703
		관세율	5~12.5%
선정사유	○ 세르비아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는 산업 GDP 1위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임		

	- 외국인 투자의 14%, 생산의 15%, 수출의 10%를 차지하고 있으며 6만명 이상을 고용 - 세르비아 정부의 높은 투자 인센티브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 세르비아 내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설립 후 인근 국가에 수출하는 양상을 보임 - 세르비아 진출 OEM 기업으로는 Stellantis가 있으며,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은 Bosch, Continental, ZF 등이 세르비아 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○ 우리기업 현대, 기아 자동차가 세르비아 시장에 진출 - 한국산 자동차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(현대·기아 각각 약 7% 수준) 이에 따른 순정 부품 및 A/S 부품 수요도 증가세를 보임
향후전망	○ 승용차는 EPA 체결시 최대 수혜 품목으로 향후 우리 제품의 수출 및 투자 확대 전망 ○ 우리 기업의 수출 걸림돌로 작용했던 높은 관세율(5~12.5%) 절감 효과로 세르비아 시장 내 추가적인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

<세르비아의 승용차 수입동향(HS Code 8703)>

(단위: 천 달러, %)

순위	국가명	2020		2021		2022	
	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
1	독일	156,392	33.7	205,143	32	222,253	33.7
2	체코	92,345	19.9	126,281	19.7	136,649	20.7
3	프랑스	45,047	9.7	62,715	9.8	58,199	8.8

4	슬로바키아	11,931	2.6	31,399	4.9	35,706	5.4
5	미국	16,952	3.7	22,963	3.6	23,940	3.6
6	일본	12,274	2.6	17,706	2.8	19,028	2.9
7	스웨덴	12,201	2.6	19,712	3.1	19,024	2.9
8	영국	20,884	4.5	17,280	2.7	18,444	2.8
9	슬로베니아	12,823	2.8	36,887	5.8	16,690	2.5
10	헝가리	12,002	2.6	13,978	2.2	16,063	2.4
15	한국	6,860	1.5	6,670	1	10,850	1.6
총계		463,384	100	641,220	100	660,296	100

자료원: ITC, 세르비아 통계청

② 전기전자 (HS 85류) - 휴대폰 (HS 8517)

주요 품목명	휴대폰	HS 코드	8517
		관세율	5~15%
선정사유	○ 전기전자 부문(HS 85류)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對 세르비아 수출 품목임 - 한국산 제품은 전기회로 접속용기기(HS 8536), 전자 집적회로(HS 8542), 인쇄회로(HS 8534)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높은 수출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○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높은 관세율(15%)은 우리기업의 세르비아 시장 경쟁 걸림돌로 작용 - 2022년 기준 세르비아의 휴대폰 분야 점유율은 중국 (57.3%)이 압도적임		
향후전망	○ EPA 체결 시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되어,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수출 확대 기대		

<세르비아의 휴대폰(스마트폰) 수입동향(HS Code 8517)>

(단위: 천 달러, %)

순위	국가명	2020		2021		2022	
	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
1	중국	258,053	56.4	282,946	56.4	305,979	57.3
2	베트남	125,567	27.4	118,853	23.7	104,088	19.5
3	인도	2,301	0.5	435	0.1	18,365	3.4
4	한국	1,344	0.3	695	0.1	14,035	2.6
5	홍콩	906	0.2	5,927	1.2	12,153	2.3
6	스웨덴	1,406	0.3	11,005	2.2	9,469	1.8
7	벨라루스	1	0	-	-	6,338	1.2
8	미국	6,199	1.4	4,396	0.9	5,673	1.1
9	핀란드	7,448	1.6	4,508	0.9	5,385	1
10	체코	1,833	0.4	2,137	0.4	5,284	1
총계		457,452	100	502,090	100	533,959	100

자료원: ITC, 세르비아 통계청

③ 전기전자 (HS 85류) - 모니터, 프로젝터, TV (HS 8528)

주요 품목명	모니터, 프로젝터, TV	HS 코드	8528
		관세율	1~15%
선정사유	○ 전기전자 부문(HS 85류)은 우리나라의 對세르비아 주요 수출 품목임 - 전기회로 접속용기기(HS 8536), 전자집적회로(HS 8542), 인쇄회로(HS 8534)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높은 수출 점유율을 보이며 세르비아 시장 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○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높은 관세율(15%)은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 시장 경쟁 걸림돌로 작용 - 우리나라는 컬러 TV(HS 8528.72)분야에서 세르비아		

	의 2위 수입 상대국임(중국 1위)
향후전망	○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슬로바키아, 헝가리, 튀르키예가 FTA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, EPA 체결 시 경쟁국 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전망

<세르비아의 모니터, 프로젝터, TV 수입동향(HS Code 8528)>

(단위: 천 달러, %)

순위	국가명	2020		2021		2022	
	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
1	중국	49,191	62.5	66,799	66.5	51,685	65.3
2	한국	7,284	9.2	7,502	7.5	4,455	5.6
3	슬로바키아	5,743	7.3	4,681	4.7	3,704	4.7
4	헝가리	2,135	2.7	2,328	2.3	3,631	4.6
5	튀르키예	1,517	1.9	2,565	2.6	2,799	3.5
6	인도네시아	3,783	4.8	1,762	1.8	2,374	3
7	독일	980	1.2	1,320	1.3	1,357	1.7
8	폴란드	932	1.2	1,113	1.1	1,271	1.6
9	베트남	350	0.4	1,117	1.1	1,183	1.5
10	말레이시아	2,117	2.7	2,800	2.8	977	1.2
총계		78,747	100	100,491	100	79,116	100

자료원: ITC, 세르비아 통계청

④ 기계 (HS 84류) - 불도저, 스캐퍼 (건설중장비) (HS 8429)

주요 품목명	불도저, 스캐퍼 (건설중장비)	HS 코드	8429
		관세율	1~10%
선정사유	○ 세르비아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라 건설중장비 및 부품 수요도 함께 확대될 전망		

	- 현재 세르비아는 EU가입을 목표로 세르비아 내 도로, 철도, 항만, 도심 등 다양한 현대화 및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 - 특히 운송 인프라 투자금액은 약 230억 유로(약 250억 달러)로 평가되며, 이에 따른 건설중장비 수요가 지속 증가 전망 - 2000년대 초 경제제재 여파로 기계 관련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현재 한국, 독일, 일본,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○ 동 품목은 한국산 제품이 세르비아 시장에서 고품질과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-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계, 중장비 부품 중심으로 현지 진출 성공 사례발생 - 한국 대기업 브랜드 제품에 대한 현지 수입 유통업체의 높은 신뢰도를 보유 중
향후전망	○ 동 품목은 비교적 높은 관세를 가지고 있어 EPA 체결 시 큰 수혜를 누릴 전망 - 관세 혜택을 통해 EU 브랜드와 동일한 조건에서 가격 경쟁 가능 ○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, 유럽산과 중국산 대비, 품질 우위에 기반한 우리기업 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됨

<세르비아의 불도저, 스크래퍼, 로드롤러 수입동향(HS Code 8429)>

(단위: 천 달러, %)

순위	국가명	2020	2021	2022
----	-----	------	------	------

	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
1	독일	16,188	16.6	18,286	15.6	23,159	22.6
2	중국	7,861	8.1	19,292	16.5	19,809	19.4
3	일본	13,436	13.8	12,495	10.7	8,685	8.5
4	프랑스	8,991	9.2	14,106	12	7,797	7.6
5	오스트리아	3,749	3.8	4,409	3.8	7,614	7.4
6	한국	6,520	6.7	3,773	3.2	5,398	5.3
7	튀르키예	3,912	4	4,279	3.7	5,255	5.1
8	핀란드	8,927	9.1	3,940	3.4	4,258	4.2
9	이탈리아	1,890	1.9	1,901	1.6	3,818	3.7
10	영국	6,252	6.4	3,925	3.4	3,574	3.5
총계		83,801	100	125,831	100	121,252	100

자료원: ITC, 세르비아 통계청

⑤ 기계 (HS 84류) - 절삭가공용 선반 (HS 8458)

주요 품목명	절삭가공용 선반	HS 코드	8458
		관세율	10%
선정사유	○ 세르비아 건설 수요의 빠른 성장세에 따라 건설 중장비 및 부품 수요도 함께 확대될 전망 - 현재 세르비아는 EU가입을 목표로 세르비아 내 도로, 철도, 항만 등 다수 현대화 및 신규 프로젝트 추진 - 특히 운송 인프라 투자금액은 약 230억 유로(약 250억 달러)로 평가되며, 이에 따른 건설중장비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 - 2000년대 초 경제제재 여파로 기계 관련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현재 한국, 독일, 일본,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		
	○ 한국산 공작기계는 세르비아에서 고품질과 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-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계, 중장비 부품		

	중심으로 현지 진출 성공사례가 발생 - 한국 대기업 브랜드 제품에 대한 현지 수입 유통업체의 높은 신뢰도를 보유 중
향후전망	○ 비교적 높은 관세(10%)를 가진 동 품목은 EPA 관세 혜택을 통해 증가하는 세르비아 건설 수요 속 현재의 높은 점유율(현재 24.4%)을 더욱 확고하게 지킬 수 있을 전망

<세르비아의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수입동향(HS Code 8458)>

(단위: 천 달러, %)

순위	국가명	2020		2021		2022	
	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
1	한국	1,314	11.2	1,211	17.2	2,473	24.4
2	미국	1,087	9.3	361	5.1	1,962	19.3
3	일본	1,477	12.6	1,664	23.6	1,354	13.3
4	불가리아	75	0.6	7	0.1	1,216	12
5	중국	902	7.7	754	10.7	904	8.9
6	이탈리아	1,728	14.7	170	2.4	667	6.6
7	독일	2,559	21.8	841	11.9	562	5.5
8	대만	0	0	497	7.1	216	2.1
9	태국	131	1.1	92	1.3	216	2.1
10	네덜란드	175	1.5	15	0.2	134	1.3
총계		11,730	100	7,047	100	10,146	100

자료원: ITC, 세르비아 통계청

⑥ 의료기기 (HS 90류) - 초음파 및 방사선 기기 (HS 9022)

주요 품목명	초음파 및 방사선 기기	HS 코드	9022
		관세율	1~3%
선정사유	○ 세르비아의 경제성장 및 정부의 의료 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 지속 성장		

	- 세르비아 정부의 ‘공중보건 전략’에 따른 병원 및 의료시스템 현대화에 23억 달러 투자로 향후 의료기기 시장 수요 증가 전망 - 낮은 자체 생산량으로 의료기기 수요의 대부분을 유럽, 미국, 중국 등 수입에 의존 ○ 우리나라는 세르비아의 7번째 의료기기 수입 상대국 - 가격 대비 품질 측면에서 유럽산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는 한국산 의료기기 수요 증가세 - 특히 한국의 초음파 기기는 세르비아 유통업체와 병원 관계자의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높은 시장 점유율(2022년 기준 4위)을 기록 중
향후전망	○ EPA 체결로 향후 세르비아와 한국 의료 기업 간 협력 확대가 기대 - 한국산 의료기기의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르비아 기업과 공공 의료 분야에서 더욱 높은 인지도를 얻을 전망 ○ 낮은 관세율의 동 품목은 EPA의 관세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기 어렵지만,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물량이 한국으로 점차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

<세르비아의 초음파 및 방사선 기기 수입동향(HS Code 9022)>

(단위: 천 달러, %)

순위	국가명	2020		2021		2022	
	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
1	중국	2,952	23	6,043	13.5	10,606	22.5
2	독일	3,023	23.5	16,954	37.9	9,295	19.7

3	미국	1,213	9.4	5,845	13.1	8,450	17.9
4	한국	730	5.7	618	1.4	3,918	8.3
5	대만	0	0	24	0.1	2,697	5.7
6	일본	1,706	13.3	6,029	13.5	2,630	5.6
7	영국	77	0.6	245	0.5	1,839	3.9
8	이탈리아	365	2.8	441	1	1,651	3.5
9	벨기에	842	6.6	1,985	4.4	1,467	3.1
10	프랑스	62	0.5	1,932	4.3	1,264	2.7
총계		12,842	100	44,722	100	47,199	100

자료원: ITC, 세르비아 통계청

⑦ 의료기기 (HS 90류) - 내과용, 외과용, 치과용, 수의용 진단기기 (HS 9018)

주요 품목명	내과용, 외과용, 치과용, 수의용 진단기기	HS 코드	9018
		관세율	1~5%
선정사유	○ 세르비아의 경제성장 및 정부의 의료 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 지속 성장 - 세르비아 정부의 ‘공중보건 전략’에 따른 병원 및 의료시스템 현대화에 23억 달러 투자로 향후 의료기기 시장 수요 증가 전망 - 낮은 자체 생산량으로 의료기기 수요의 대부분을 유럽, 미국, 중국 등 수입에 의존 ○ 우리나라는 세르비아의 7번째 의료기기 수입 상대국 - 가격 대비 품질 측면에서 유럽산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는 한국산 의료기기 수요 증가세 - 한국산 진단기기는 세르비아에서 품질과 가격 측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, 현지 유통업체와 병원 관계자들은 한국산 제품에 높은 선호도를 보임		
	○ EPA 체결로 향후 세르비아와 한국 의료 기업 간 더욱 효과적인 협력이 기대		
향후전망			

	- 한국산 의료기기의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르비아 기업과 공공 의료 분야에서 더욱 높은 인지도를 얻을 전망 ○ 동 품목은 관세율이 높지 않지만, 가격민감성이 높은 세르비아 시장 특성 상, 소규모의 관세 인하도 점유율 변화에 크게 작용할 수 있음
--	--

<세르비아의 진단기기 수입동향(HS Code 9018)>

(단위: 천 달러, %)

순위	국가명	2020		2021		2022	
	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
1	중국	17,757	19.7	19,129	15.5	21,776	19.7
2	미국	14,417	16	20,075	16.2	19,682	17.8
3	독일	14,318	15.9	24,255	19.6	15,144	13.7
4	일본	4,133	4.6	5,435	4.4	5,304	4.8
5	이탈리아	3,760	4.2	4,370	3.5	4,002	3.6
6	한국	3,703	4.1	5,267	4.3	3,849	3.5
7	아일랜드	3,093	3.4	2,581	2.1	3,609	3.3
8	멕시코	2,891	3.2	2,277	1.8	3,471	3.1
9	프랑스	2,708	3	3,207	2.6	2,927	2.6
10	스위스	2,599	2.9	3,405	2.8	2,675	2.4
총계		90,291	100	123,557	100	110,637	100

자료원: ITC, 세르비아 통계청

⑧ 화장품 (HS 33류) - 기초화장품 (HS 3304)

주요 품목명	기초화장품	HS 코드	3304
		관세율	15%
선정사유	○ 경제성장과 가계소득 증가로 지속해서 세르비아의 기초화장품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음		
	- 2022년 세르비아 기초화장품 시장 규모는 7,858만		

	달러로 지난 5년간 연평균 6.5% 성장률 기록 (자료: Euromonitor) - 세르비아는 인근 국가에 비해 높은 화장품 구매 수요를 보이며, 특히 피부 개선과 영양 보충 등 피부 건강 관련化妆품을 선호 - 화장품 수요의 대부분을 유럽, 아시아 등으로부터 수입 - 최근 온라인 유통망 확대 추세에 힘입어 화장품 구매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 ○ 한국 프리미엄 화장품에 대한 세르비아 바이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수출액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- 최근 한국 드라마·케이팝 등 한류 열풍으로 한국化妆품을 찾는 세르비아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, 한국化妆품을 유통하는 유통업체 수도 증가세 - 니베아, 로레알 등 EU 브랜드가 시장점유율 1,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마스크팩과 중저가 브랜드 기초化妆품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
향후전망	○ 동 품목은 세르비아 내 높은 인지도와 꾸준한 성장률을 바탕으로 EPA 체결 시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전망 ○ 우리 기업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했던 높은 관세 (15%) 감면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및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 통한 수출 및 투자 기회 확대 전망

<세르비아의 기초화장품 수입동향(HS Code 3304)>

(단위: 천 달러, %)

순위	국가명	2020	2021	2022
----	-----	------	------	------

	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
1	프랑스	15,473	22.8	17,174	22.9	20,256	26
2	독일	14,560	21.5	13,182	17.6	12,913	16.6
3	이탈리아	6,669	9.8	7,757	10.4	8,953	11.5
4	폴란드	7,616	11.2	7,735	10.3	7,458	9.6
5	중국	1,928	2.8	2,373	3.2	3,455	4.4
6	미국	2,289	3.4	3,061	4.1	2,943	3.8
7	튀르키예	3,332	4.9	2,556	3.4	2,642	3.4
8	스페인	2,191	3.2	2,138	2.9	2,191	2.8
9	한국	933	1.4	1,410	1.9	1,793	2.3
10	스위스	1,420	2.1	2,154	2.9	1,727	2.2
총계		67,806	100	74,904	100	77,975	100

자료원: ITC, 세르비아 통계청

⑨ 식자재 (HS 19류) - 라면 (HS 1902)

주요 품목명	라면	HS 코드	1902
		관세율	30%
선정사유	○ 최근 몇 년간 세르비아 내 한국 식품 인기 증가 - 한류 열풍과 베오그라드 내 K-마트가 개장하며 많은 한국 음식에 대한 세르비아 관심도가 눈에 띄게 증가 * 2023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시 내 최초 한인마트 개장 - 김치, 김, 쌀밥 등 다양한 한국 식자재에 관심이 많으며, 특히 라면은 세르비아 소비자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임 ○ 높은 수입 관세(30%)와 운송비에서 비롯되는 비싼 소매 가격은 세르비아 내 한국산 식품 점유율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		
향후전망	○ EPA 체결 이후 30%의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한국 식자재의 빠른 성장이 기대 ○ 더불어 우리 기업은 세르비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인근 서발칸국가로 진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		

<세르비아의 파스타 및 면류(라면) 수입동향(HS Code 1902)>

(단위: 천 달러, %)

순위	국가명	2020		2021		2022	
	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
1	이탈리아	6,057	54.8	8,014	63.3	9,787	60.9
2	폴란드	880	8	1,521	12	1,682	10.5
3	독일	685	6.2	824	6.5	1,032	6.4
4	헝가리	810	7.3	675	5.3	730	4.5
5	튀르키예	168	1.5	174	1.4	601	3.7
6	크로아티아	498	4.5	480	3.8	588	3.7
7	중국	82	0.7	199	1.6	317	2
8	러시아	0	0	41	0.3	297	1.8
9	체코	37	0.3	110	0.9	163	1
10	오스트리아	140	1.3	82	0.6	159	1
18	한국	9	0.1	13	0.1	20	0.1
총계		11,048	100	12,666	100	16,071	100

자료원: ITC, 세르비아 통계청

⑩ 고무제품 (HS 40류) - 고무 타이어 (HS 4011)

주요 품목명	고무 타이어	HS 코드	4011
		관세율	13%
선정사유	○ 자동차 판매 확대에 힘입은 자동차부품 수요 증가 추세 -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무제품 세르비아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○ 한국자동차 판매 확대에 한국산 타이어 제품에 대한 현지 바이어의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어 향후 수요 확대 전망		
향후전망	○ 높은 수입 관세(13%)를 보이는 동 품목은 EPA 체결 이후 관세 인하 수혜를 누릴 전망		

- 중국, 독일 등 경쟁국 대부분이 이미 관세 혜택을 받는 EU 국가라는 점에서, 관세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리 제품의 향후 수출 증가 기대

〈세르비아의 고무 타이어 수입동향(HS Code 4011)〉

(단위: 천 달러, %)

순위	국가명	2020		2021		2022	
	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	수입액	점유율
1	중국	29,340	27.6	33,531	24.6	34,696	22.6
2	튀르키예	11,770	11.1	15,684	11.5	19,061	12.4
3	독일	8,859	8.3	11,758	8.6	11,809	7.7
4	헝가리	4,261	4	7,280	5.4	11,053	7.2
5	폴란드	8,625	8.1	11,035	8.1	10,895	7.1
6	이탈리아	1,943	1.8	2,570	1.9	6,600	4.3
7	체코	3,145	3	5,099	3.7	6,566	4.3
8	슬로바키아	2,738	2.6	5,033	3.7	6,068	4
9	스페인	3,929	3.7	5,518	4.1	6,056	4
10	루마니아	2,895	2.7	5,106	3.8	5,884	3.8
11	한국	2,047	1.9	3,045	2.2	5,791	3.8
총계		106,490	100	136,043	100	153,209	100

자료원: ITC, 세르비아 통계청

나. 현지 주요업체 반응 및 전망

- ◆ 수출 유망품목을 기준으로 기 진출기업,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현재 시장 동향과 EPA 체결 시 전망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
- ◆ 대다수 업종에서 한국제품은 세르비아 시장 내 높은 선호도를 보이지만, 현재의 높은 관세가 시장 경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밝힘. 응답자 대부분은 EPA 체결 시 관세 혜택으로 인한 수출 증가 전망

① 자동차

회사명	HYUNDAI SERBIA (현대 세르비아)
주요 내용	○ 기업 소개 - 현대자동차 세르비아 법인은 기아자동차와 함께 세르비아, 몬테네그로, 마케도니아, 알바니아 등 발칸지역 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음 ○ 한국제품 동향 - 한국산 자동차는 높은 수입 관세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 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, 특히 현대 자동차는 지난 10년간 유럽 브랜드에 비해 인기와 판매량 측면에서 큰 성장률을 기록 - 과거 한국산 자동차는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유럽 브랜드에 비해 선호도가 낮았지만, 최근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 -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(12~15%)는 세르비아 내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 ○ EPA 전망 - EPA 체결 시 관세 인하로 한국 자동차의 세르비아 수출 및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- 또한 양국 간의 EPA는 사업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. 현재 시장 점유율 증가 추세에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되면 세르비아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

② 화장품

회사명	LECO
주요	○ 기업 소개

내용	- 세르비아의 최대 화장품 수입 및 유통업체로, 대형 화장품 판매 체인, 대형 약국, 대형 마트 등에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음 - 현재 다수의 국내 화장품 기업(Klairs, By Wishtrend, Mediheal 등)과 협력하며 K-뷰티 제품을 세르비아에 유통 중임 ○ 한국제품 동향 - 지난 몇 년간 한류 열풍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세르비아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했으며, 특히 한국의 페이스 마스크, 토너, 세럼, SPF 크림이 가장 인기 있는 품목임 - 한국 화장품은 다른 제품보다 혁신성, 품질, 그리고 기능성을 강조한 현대적인 포장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- 세르비아에서는 소매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페이스 마스크가 가장 인기 있으며, 최근 안티에이징 제품에 높아진 관심과 더불어 한국의 SPF 크림의 인기가 눈에 띄게 증가 - 세르비아는 최근 온라인 샵 중심으로 유통 경로가 확대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한국제품 대중화 또한 가속화되고 있음 ○ EPA 전망 - 세르비아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가장 큰 단점은 높은 관세(15%)로 인한 타 국가 브랜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소매가임 - 해당 유통업체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EU국가 업체에 비해 한국 화장품 수입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있
----	---

	다고 언급 - EPA체결 시 세르비아 내 한국 화장품 수입 및 유통이 훨씬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 - 더불어 세르비아를 통해 발칸지역 전체에 한국 화장품을 유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EPA 체결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냄
--	--

③ 식자재

회사명	Spices of the World (Spices.rs)
주요 내용	○ 기업 소개 - 세르비아의 주요 식자재 유통업체로 다양한 국가의 식자재를 세르비아 내 식당, 호텔, 주요 소매업체 체인에 공급하고 있음 ○ 한국제품 동향 - 최근 베오그라드 내 K-푸드 매장이 생기면서 많은 세르비아인들이 한국 요리를 접하게 되었고, 이에 따라 한국 식품을 찾는 세르비아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- 세르비아 소비자들은 한국 식품의 높은 품질, 독특한 포장과 맛 등에서 타 국가 제품 대비 높은 선호도를 보임 -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와 운송비에서 비롯되는 비싼 소매 가격은 세르비아 내 한국 식품의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○ EPA 전망 - 현재 한국 식품에 대한 높은 수입 관세는 세르비아 수입 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

	* 인기 품목 중 하나인 라면의 수입 관세는 30%임 - 양국 간 EPA 협정은 한국에서 제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힘 - EPA로 관세 철폐 시 한국 식품은 세르비아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, 높은 수요 속 빠른 성장 예상 -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인근 국가로 한국 식품 판매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전망
--	---

④ 의료기기

회사명	Gorenje GTI
주요 내용	○ 기업 소개 - 지난 20년간 전 세계 유명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협력하고 있는 세르비아의 주요 의료기기 판매, 설치 및 유지관리 업체 - 현재 뷰티케어, 진단기기, 의료기기 분야 한국기업 4곳과 협력 중임 ○ 한국제품 동향 - 한국 의료 브랜드는 세르비아 의료 시장 내 안정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 * 특히 가격 대비 품질 측면을 강점으로 세르비아 의료기관과 기업 사이에서 인기와 선호도를 보임 - 현재 세르비아 내 가장 큰 경쟁사인 유럽과 미국 기업 사이에서 한국 의료기기는 첨단 기술과 IT 혁신 활용을 통한 차별화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지키고 있음 ○ EPA 전망

	- 세르비아 의료기기 관세는 다른 산업만큼 높지 않지만, EPA 체결로 인해 한국 의료 기업들과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- 한국제품의 선진 기술과 가격 대비 품질 측면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세르비아 기업과 사용자 사이에서 한국 기업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
--	--

개요			
사례명	세르비아-튀르키예 FTA	발효	2010년 9월
특징	○ FTA 발효 이후 튀르키예의 대 세르비아 수출이 약 8배 이상 증가 ○ 외국인 직접 투자 장려 목적의 외국인 투자 보호를 통해 양국 모두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룸		

① 분석 목적

- 세르비아와 튀르키예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예전부터 교역량도 적지 않았으나, 2010년까지 FTA 미체결로 인한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이 양국 교역량 상승에 장벽으로 작용
- 튀르키예는 세르비아 대비 철강, 기계류, 전기전자부품, 자동차부품, 섬유 등 품목에 비교우위가 있어, 우리나라의 수출산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
- 양국의 교역량은 2010년 9월 FTA 체결 이후 급증하여, 튀르키예는 세르비아의 제 6위 수출국이 되었으며(체결 전 15위), 튀르키예의 對세르비아 수출액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0% 증가하였음. 이에 FTA를 통한 관세장벽 철폐가 한국산 제품의 세르비아 진출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

② FTA 개요

□ 세르비아-튀르키예 FTA

- 튀르키예와 세르비아 간의 FTA는 2009년 6월 1일 이스탄불에서 협정을 체결했으며, 2010년 9월 발효
 - 이후 2018년 1월 30일 개정 의정서를 체결하며 농업 양허를 개선하고 FTA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, 2019년 6월 1일 발효

- FTA에 따라 양국 간의 거의 모든 공산품 수입 관세가 철폐
 - 농산물과 관련해서, 양국은 2018년 개정 의정서 체결을 통해 최혜국 관세 감면 또는 면제에 따른 관세 할당 형태로 상호 양보 교환
 -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외에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, 지적 재산권, 원산지 규정, 반덤핑 및 상계 조치, 보호조치 등 많은 분야에서 합의가 이뤄짐

□ 주요 목적

- 양국 간의 경제 협력 증대 및 국민 생활 수준 향상
- 상품 무역 장벽의 점진적 철폐
- 상호 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
- 양국 간의 공정한 무역 경쟁 조건 제공
- 양국 간의 투자 장려를 위한 조건 제공
- 제 3국 시장에서 당사국 간 무역 및 협력 촉진

③ FTA 효과

□ FTA 발표 이후 증가한 튀르키예의 대 세르비아 수출

〈 양국간 FTA 체결 이후 세르비아의 대 튀르키예 수입 동향 〉

(단위 : 천 달러)

구분	수입액	전년대비 증감률	순위
2009	293,851	-33%	15
2010	324,881	11%	15
2011	405,143	25%	15
2012	438,951	8%	14
2013	530,882	21%	12
2014	589,747	11%	8
2015	578,440	-2%	7
2016	667,344	15%	7
2017	824,538	24%	7

2018	982,611	19%	6
2019	1,056,194	7%	6
2020	1,143,921	8%	6
2021	1,701,794	49%	5
2022	2,123,582	25%	6

*2010년 9월 FTA 발효, 자료원: ITC Trade Map

- FTA 발효 이후 튀르키예의 대 세르비아 수출이 약 8배 이상 증가
 - FTA 체결 이전까지 튀르키예의 對세르비아 수출 규모는 미미('09 기준 15위)하였으나, 발효 이후 철강, 농산품 등 주요 품목의 관세 혜택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
 - 2021년 튀르키예의 세르비아 수출액은 전년 대비 49%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현재 튀르키예는 세르비아의 주요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

〈 세르비아의 10대 주요 수입국 동향 〉

(단위 : 천 달러)

순위	국가명	2020	2021	2022
1	중국	3,249,389	4,158,724	5,139,502
2	독일	3,559,879	4,457,726	4,676,647
3	러시아	1,583,857	1,806,057	3,043,390
4	이탈리아	2,197,695	2,726,713	2,716,456
5	헝가리	1,299,508	1,422,716	2,134,012
6	튀르키예	1,143,921	1,701,794	2,123,582
7	폴란드	872,736	1,107,783	1,221,836
8	이라크	425,596	755,000	1,208,446
9	프랑스	728,581	884,464	1,132,975
10	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	603,479	919,891	1,091,748
총계		26,154,982	33,793,017	39,756,632

자료원: ITC Trade Map

- 품목별 수출 동향
 - 튀르키예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, 전기 전자, 섬유 산업 부문에서

도 FTA 체결 이후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보임

< 튀르키예의 세르비아 수출 10대 품목 ('22년 기준, HS 2단위) >

(단위 : 천 달러)

순번	HS 코드	품목	2020	2021	2022	순위
1	72	철강	55,955	128,810	220,925	1
2	84	기계류	112,134	140,768	161,496	4
3	39	플라스틱제품	79,484	134,437	150,811	4
4	85	전기전자제품	88,504	129,464	140,796	5
5	73	철강제품	58,855	109,661	138,630	2
6	87	자동차	90,060	95,358	97,918	6
7	27	광물성연료	4,336	7,011	86,256	9
8	61	의류(편물제)	49,135	84,201	84,011	2
9	76	알루미늄제품	31,805	56,166	68,456	4
10	62	의류(직물제)	50,174	75,335	65,192	1
전체 수출액			1,143,921	1,701,794	2,123,582	

자료원: ITC Trade map

□ 튀르키예의 세르비아 FDI 증가

- 세르비아 국립 은행(NBS)에 따르면, 세르비아는 외국인 투자자 중 21위 국가로, FTA 발효 이후 10년 간(2010~2021) 튀르키예의 총 세르비아 투자 금액은 2억 2,090만 달러에 달함

< 프로젝트 수 기준 2022년 세르비아 투자 국가 순위 >

순위	국가명	비중 (%)
1	독일	15
2	이탈리아	14.3
3	오스트리아	7.5
4	슬로베니아	6.2
5	미국	5.2
6	프랑스	4.9
7	튀르키예	3.8
총계		100.0

자료원: 세르비아 투자청(RAS)

- FTA 체결 이전 튀르키예의 세르비아 투자는 주로 섬유 부문에서 이뤄졌지만, 2015년부터 자동차, 건설, 기계, 은행,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수의 투자가 진행
- 세르비아 투자청(RAS)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세르비아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중 점유율 3.8%를 차지하며 7위를 기록했으며, 세르비아에 대한 튀르키예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
 - 금액 기준 2018년 6,210만 유로(약 6,781만달러) 2019년 1,100만 유로(약 1,200만달러), 2020년 3,040만 유로(약 3,300만달러), 2021년 5,030만 유로(약 5,500만달러) 기록

□ 유럽 내 새로운 경제파트너로 부상하는 세르비아

- 세르비아는 '17년 1.6억 달러에서 '22년 4.1억 달러로 5년 만에 교역액이 2.5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, 유럽 내 한국의 새로운 무역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
- 또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자동차부품, 인프라개발, 신재생에너지,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국가간 협력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- 2023년 세르비아 총리 방한 및 양국 대통령 정상회담 진행 등 향후 더욱 긴밀한 경제 협력이 기대되어, 세르비아의 EPA 체결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

□ EPA 체결을 통한 우리 기업의 對세르비아 수출 경쟁력 확보 기대

- EU 미가입국인 세르비아는 한-EU FTA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그간 관세 문제가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 시장 경쟁에 어려움으로 작용
- 현지 바이어 인터뷰를 통해 볼 수 있듯, 한국의 수출 주요 품목은 우수한 품질과 높은 선호도를 바탕으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, 가격 민감도가 큰 세르비아 시장 특성상 FTA 체결 국가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임
- 하지만 FTA 체결 이후 수출액이 8배 이상 증가한 튀르키예의 사례처럼, EPA를 통한 관세 혜택은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 수출 확

대 기회로 작용할 전망

- 특히 수입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(12.5%), 휴대폰(15%), 화장품(15%) 등 주요 품목은 EPA 관세 혜택과 우수한 품질과 높은 선호도를 바탕으로 확고한 수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

□ 우리 기업은 EPA 체결로 증가할 투자 진출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- EPA 체결로 인한 수출 확대는 발칸지역의 유통 허브인 세르비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
- 현재 세르비아는 EU 가입을 목표로 친환경, ICT, 철도 및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, 동유럽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헝가리·폴란드를 이은 우리기업의 투자지출 유망지역으로 부상 중
- 최근 세르비아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수출시장 및 투자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 기업도 EPA 진행 상황에 주목하며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

<끝>



작성자

◆ 베오그라드 무역관 정성훈



Global Market Report 23-047

한-세르비아 EPA 추진현황과 우리기업 진출 방안

발 행 인 | 유정열
발 행 처 | KOTRA
발 행 일 | 2023년 12월
주 소 |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
(06792)
전 화 | 02) 1600-7119(대표)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문 의 처 | 베오그라드 무역관
(+381-11-311-0324)

ISBN : 979-11-402-0809-8 (95320)

Copyright © 2023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


